

CEO 동정

충청본부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일 충청본부를 방문하여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철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며 "철도전문 기관의 위상에 맞는 기술력과 안전을 통한 철도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호남본부 업무보고 및 임직원 워크숍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0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호남본부 전직원 워크숍에 참석, "부패 0, 안전사고0, 효율건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1시간 동안 특강을 가졌다.

수도권본부 임직원 워크숍 특강 및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수도권본부 전직원 워크숍에서 "공단의 경영위기는 전직원들의 공감 및 동참이 절대 필요하다"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2020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진 워크숍 개최

기획혁신본부 성과관리처(처장 박민서)는 지난 5일 CEO를 비롯한 본사 및 지역본부의 본부장, 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진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논의하였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1월 1일 제2의 창립을 선언한 후 '글로벌 Top 5 철도 강국 실현'을 새 비전으로 정한 공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목표(안)를 점검하고, 본부별 전략과제와 주요 현안과제 등을 토론했다.

공단은 경영진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확정된 뒤 11월 10일부터 2주간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사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소속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경영진 워크숍을 계기로 공단은 경영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장차 세계 초일류 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0 글로벌 경영전략 선포식을 내년 1월 개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획혁신본부 문종규 기자〉



계시판

금주의 주요뉴스(11. 7 ~ 11. 12)

- KTX 호남고속철 최종안 관심 집중(세계일보 11. 7)
- 수도권고속철 1순위 업체 무더기 탈락(파이낸셜 11. 7)
- 철도르네상스 시대 중심지 원주(강원일보 11. 7)
- 경춘선 급행 요금 1만원대 너무 비싸(강원일보 11. 7)
- 2020 글로벌 경영전략수립 완료(충청일보 11. 7)
- 수도권고속철 업체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일보 11. 7)
- 이리고 철거 소음·폐수 심각(전북도민일보 11. 7)
- 지역 철도예산 대폭증액... 내년부터 사업가속(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11. 7)
- 패철도부지 도시조 조성, 시 오는 10일 준공식(경북일보 11. 7)
- "새만금~광주 철도건설을"(서울신문 11. 8)
- 저가 낙찰 후 설계 변경(금강일보 11. 8)
- 청주공항 연결 전철 직선노선 설치 촉구(대전일보 11. 8)
- "춘천~속초 고속철 예산 반드시 관철"(강원일보 11. 8)
-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 1안 유력(강원도민일보 11. 8)
- 포항,패철도 부지활용 도시조 조성, 10일 준공(대구신문 11. 8)
- 허위 서류로 낙찰 삼성SDS 형사고발(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울산신문, 충청투데이 11. 9)
- 연천복선전철 사업계획고시(인천신문 11. 9)
- 평택시, KTX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시동'(충부일보 11. 9)
- "전철공사, 우리도 끼워줘요"(경기일보 11. 9)
- 소사~원시 '지역업체 동승' 유도(기호일보 11. 9)
- 철도사업 국비지원 '급감'(경인뉴스 11. 9)
- 낙후지역 교통개선 힘써야(경인뉴스 11. 9)
- 물류도 녹색 경제 시대(경남연합 11. 9)
- KTX 역세권 개발 KCC 참여하나(경상일보 11. 9)
- 충청권 철도건설에 8000억 투입(대전일보 11. 9)
- '신탄진 철도인입선' 해결되나(중도일보 11. 9)
- 춘천~속초 고속철 예산 예정위서 '결판'(강원 11. 9)
- "경원선 철도 복구공사 서둘러달라"(강원일보 11. 9)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탄력 받나(강원도민일보 11. 9)
- 경원선 노선 일부토지 강제 수용(강원도민일보 11. 9)
- '항남 예산' 포함~삼척 철도 500억 늘어(한국경제 11. 10)
- 연말 개통 '경춘선 고속화 열차타면 용산~춘천 1시간 만에 간다'(한국경제 11. 10)
- 평창 고속철에 경기남부 별도 신설노선추진(충부일보 11. 10)
- 성남-이천-여주 전철공사 탄력(인천신문 11. 10)
- 서해안 철도 노선변경 특혜논란 확산(대전일보 11. 10)
- 경부고속철도 선로전환기 장애, 누구 탓?(금강일보 11. 10)
- 고양-의정부 교외선 전철화 재추진(한국일보 11. 11)
- 철도예산 영·호남 격차 극심(무등일보 11. 11)
- 부산소방본부-KTX 금정터널 업무협약(경남일보 11. 11)
- 동해중부선 철마 곧 달린다(경북도민일보 11. 11)
-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60억 반영하라"(강원일보 11. 12)



공단, 경영위기 극복 위한 총력체제 구축

- 워크숍 통해 전 직원 공감대 형성, 실행방안 마련 -

공단은 제2창립 선언식(11.1), 경영진 워크숍(11.5) 개최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이어 본사와 지역본부별로 전직원 워크숍을 추진, 변화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부패 '0', 안전사고 '0', 효율 건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수립 중인 뉴비전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워크숍 개최와 관련 "공단의 경영위기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거침없이 고쳐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전 직원들의 공감 및 동참이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결코 많지 않은 만큼 빨리 변하고 빨리 바꾸어어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겠다."고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낭비 요소를 개선하거나 수익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인센티브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직원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11월말까지 제2도약을 위한 2020 글로벌 경영 전략을 확정된 뒤 12월 1일에 선포식을 갖고 총력적인 추진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파라과이 철도 PMC용역 계약 체결

- 한국철도기술의 중남미 진출 신호탄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지난 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파라과이 철도건설 타당성조사사업 PMC 용역(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관리자문)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정부는 프레지덴테 프랑코(Presidente Franco)에서 쿠루파이티(Curupaty) 구간 505km에 대한 철도를 신설하여 남부 및 동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통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파라과이측에 전액 무상원조로 제공하는 총 198만불의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비 중 공단이 수주한 PMC 용역에는 27만불이 할당되어 약 2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는 한국의 철도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번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후속사업(철도건설 본사업) 추가수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파라과이 용역의 수주를 계기로 향후 한국철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사업본부 유정희 기자)